

‘가산불교대사람’ 10권 발간

‘보살계본’에서 ‘분비’까지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지관)이 최근 불교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대사람> 제10권을 출간했다. 제10권은 ‘보살계본’에서 ‘분비’에 이르는 400여 항목 불교용어를 수록했고, 종교·역사·철학·문학·학·문화 등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전 항목에 걸쳐 종합적이고 다각적 시점을 최대한 확보해 서술했다. <가산불교대사람>은 전 18권, 세

계 최대 표제어(15만)를 수록한 불교종합사전으로, 연인원 1만1000여 명이 200여억원 예산을 들여 편찬하고 있는 대작불사다. 1982년 지관 스님(가산불교연구원 원장)이 ‘한국불교 술어의 본격 결집’을 발원해 시작된 사업은 1999년 제12권 발간 이후 매년 1~2권 사전이 꾸준히 편찬되고 있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2등국민 대접, 불자들 어떡하나?”

박광서 교수,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 기조강연

종교편향을 저지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종교의 권력화가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다. 개신교가 정권과 유착한 종교권력화 현상 속에 많은 불자들은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가 7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개최한 하계워크숍에서 박광서 교수(서강대)는 기조강연했다. 박 교수는 “한국만큼 비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불편한 나라는 없다”

며, 사회전반에 만연된 종교편향 사례를 들어 종교차별과 인권침해 사례를 토론했다. 박광서 교수는 “정치사회적으로 불교가 제 구실을 못해 벌어진 일이다. 동남아와 티베트의 활발한 참여불교에서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가 새롭게 제 자리를 찾으려면 주인의식을 갖고 불교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자들의 의식화와 단호한 결단만이 2등 국민 대접을 면하는 길”이라 주장했

조동섭 기자

진관 스님, 고구려사 연구서적 발간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

일본의 독도침탈과 중국의 동북아공정 등 열강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때 고구려사 연구서적이 불교계에서 발간돼 눈길을 끈다. 불교계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인 진관 스님(사진)은 중앙승가대 박사과정 중 연구성과를 모아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경서원)를 출간했다. 진관 스님은 “고구려사에 대한 불교계 최초의 연구”라 자평하며, “고구려 건국과 고구려 불교사 연구는 불교사의 올바른 정립을 시도하는 길”이라 설명했다. 스님이 분석한 고구려 웅성의 핵심은 ‘호국 불교’ 이념이다. 진관 스님은 “고구려 때 불교는 ‘호

국’ 이념으로 단결해 강력한 국가와 광활한 영토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수나라 200만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 등 예로 들었다. 스님은 “제대로 된 고구려사 연구를 위해서는 왜곡된 불교사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교사상사에 의한 불교역사학과 개설을 주장했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광해군은 불심 깊은 군주”

남양주 봉인사, 광해군 추모제 및 기념학술대회 개최



8월 2일 남양주 봉인사에서 열린 선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중인 김경집 교수(가운데)와 좌장을 맡은 혜월 스님(왼쪽), 논평자 한상길 연구교수(오른쪽).

광해군 원찰 봉인사의 창건 연대

봉인사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에 대한 효성을 연원으로 한 원찰이다. 폐허로 남은 곳을 1979년 故 한길로 법사가 복원불사 했다. 현재는 조계종 봉선사 말사로 등록돼 적경 스님이 주지로 있다. 김경집 교수(진각대)는 ‘광해군의 불교관과 봉인사의 창건’ 논문에서 봉인사 창건 연대를 기존에 <봉선본말사지> 등을 통해 알려진 1619년보다 빠른 1613년(광해군 5)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광해군 당시 대재의 증명법사로 활동한 부휴 선사 행장을 근거로, “1613년, 광해군이 공빈 김씨를

모신 성릉의 원찰로 봉인사를 창건하고, 대재를 설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 논문을 논평한 한상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도 부휴의 비문 <홍각등계비명병서>를 들어 김경집 교수의 1613년 창건설을 지지했다. 반면에 ‘봉인사의 한국불교에서의 위치’를 발표한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1619년 창건설을, 적경 스님(봉인사 주지)은 부친 故 한길로 법사의 증언을 토대로 고려 우왕 창건설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불심 깊은 광해군

지극했던 효심 이상으로 광해군의 불심이 깊었다는데는 발표

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김경집 교수는 “1619년 중국 사신이 가져온 사리 1과를 물리치라는 대신들의 종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은사로 보내라했다”며, “광해군은 배불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영섭 교수는 봉인사가 국가의 고식지원이 끊긴 조선시대에 임금의 지원으로 지어진 대표적 원찰이라는 점을 들었다. 황인규 교수는 발표논문 ‘광해군대 불교와 성릉의 원찰 봉인사’에서 ▲정려·부휴 등에게 발호하사 ▲김직재의 무욕사건 ▲성지와 인경궁의 역사 등을 근거로 “광해군은 호불 군주였으며, 부휴 스님의 문도들은 광해군의 정신

적 후원자였다”고 주장했다. 이택진 교수(왕원전문대)도 ‘광해군의 한국역사에서의 위치’에서 <권수정해결사문> <계초심학인문> <간화결의론> <선원제전집도사> 등 광해군대 불서간행을 근거로 견해를 더했다. # 부휴 선사 재조명과 광해군 재평가 주장도 이어져

이택진 교수는 “인조반정 후 집권한 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은광(銀鑛) 개발 등으로 상공업을 증시하고, 명과 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한 점 등을 들어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룡 교수(충남대)는 ‘봉인사 고승 부휴선사의 사상과 그의 법통관’에서 부휴 선사의 사상과 봉인사를 학술적으로 고증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열린 추모제에서 월운 스님(봉선사 주시)은 <시경>의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덕을 실천하는 것(毋念爾祖 律脩厥德)’이라는 구절을 인용해 “옛것, 옛사람을 기리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새로운 힘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스님의 설법처럼 광해군과 봉인사를 기린 한국선문화학회의 행사가 불교학계와 사회계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02)765-9602

조동섭 기자 ceta@buddhapia.com

낙산사 옛모습대로 복원 가능해져

국립문화재연구원,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문헌기록만 전해졌던 양양 낙산사의 옛모습이 관련 유물출토로 확실해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7월 31일, 낙산사 발굴조사를 마치고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낙산사 발굴조사는 2005년 6월부

터 2006년 12월까지 원통보전(중심법당)과 주변지에 대해 진행됐다. 발굴조사 결과, 중심 건물지(현 원통보전)는 고려시대부터 2005년 4월 산불로 소실되기 전까지 다섯 시기에 걸쳐 중창됐으며, 조선시대 세조 때 최대 규모였음이 밝혀졌다. 중심 건물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 87의 건물

지는 김홍도가 관동팔경 여행 중 그린 사생도 중 하나인 ‘낙산사도’의 건물지 배치 형태와 유사해 18세기 낙산사 가람 배치 형태도 파악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그 동안 문헌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지던 낙산사가 이번 발굴을 통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실과 중창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법맥을 유지한 천년 고찰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7월 31일 발간한 <낙산사 발굴조사보고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스로 닦아 증합하기

수원사 불교교리 및 수행법 강좌 수강생 모집

수원사 불교교리 & 수행법 강좌는 초보불자와 신행생활을 다년간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이 아닌 몸과 마음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닦아서 정과를 증득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 강좌입니다. 기본적인 불자예법의 습지에서부터 감동적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재조명,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부처님의 아들딸로서 법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수행의 세계로 이끌어 드립니다. 절수행법, 주력(토요·육자평), 참선(사마타·위빠사나·소지관·대지관·대광명·대원만과정·화두선), 염불기도법(공과 삼매체행·자동염불·관불·청불 수행), 밀종의 몸 다스리는 법 등 실질적이고 자세하게 불교의 다양한 수행의 문으로 안내해 드리며, 스스로 노력하여 환희로운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립니다. 그간 책과 법문을 통해서만 접했던 부처님의 교리(가르침)를 불자여러분 스스로 닦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법의 인연을 놓치지 말고 널리 동참하시길 권선합니다.

■모집요강

- 강의기간 : 3개월 (11주 강의) •강의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강의장소 : 수원사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
- 법사스님 : 성관스님, 지행스님 •입 교 식 : 9월 7일(토) 오후 2시
- * 어린이들을 위하여 탁아방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 * 강좌 수료식 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계를 받습니다.

■원서교부 및 납부방법

- 구비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반명함사진 1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원사 1층 총무과 •수 강 료 : 10만원(2회 분납 가능)
- 납부방법 : ① 수원사 총무과에 직접 납부 ② 온라인 입금 후 담당자에게전화통지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07-291457 (대한불교조계종 수원포교당))
- 문 의 : 수원사 총무과 (031-245-9670 ~ 2)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번지 ☎(031)245-9670~2

공생선원 가을 개강



헤거른스님께 듣는 금강경

- 법 사 : 헤거른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날 짜 : 9월 4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참선입문 (신문철요) 참선반 (육조단경)

- 법 사 : 무각스님
- 시 간 : 오전 10시 30분 / 저녁 7시 30분
- 날 짜 : 9월 2일 참선반 / 9월 3일 참선입문

* 청년법회(금강경오가해) 매주 토요일 6시 / 일요가족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http://cafe.daum.net/zenmaster)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Tel 02)900-2448

